

말레이시아의 대형 댐 프로젝트

1. 벌목사업의 착수

보르네오에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 댐 중의 하나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과거 15년간을 검토하여 온 것이다. 이것이 길몽인지 악몽인지 모르겠으나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드디어 1995년 4월중에 현실화를 향한 출발을 하게 되었다. 1995년 3월 31일에 말레이시아의 환경청은 바쿰(Bakun) 댐에 대한 보고서의 첫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댐을 건설하게 될 건설회사인 에크란(Ekran) 사로 하여금 벌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크란 사는 1995년 내에 우림(雨林) 17,000헥타르(42,000에이커)를 벌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면적은 싱가포르의 면적보다도 크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수상은 말레이시아가 2020년까지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을 원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이 댐은 이집트의 아스완(Aswan) 댐의 발전설비와 맞먹는 240만kW의 수력발전용량을 갖게 되며, 말레이시아의 공업성장의 다음 파도를 넘어가는데 필요한 전력공급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의 정글과 유목생활을 하는 부족들은 이와 같은 원대한 비전과는 쉽게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하티 수상은 오래 전에 그들의 나라에서 삼림을 벌목하고 그리고 토착민들을 정복했던 서구사람들이 말레이시아의 우림 훼손과 현지인의 이주문제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환경평가서의 승인

말레이시아의 소비자 단체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이 댐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부담,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타당성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 입찰과정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환경규정에 대한 분명한 위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댐을 위해서 수행되는 것과 같은 환경평가서는 공포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공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크란 사에게 사업참여의 길을 열어준 15권으로 구성된 환경평가서는 정부에서 임명한 패널에 의해서 6주만에 승인이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평가서와 패널의 결정문은 어느 것도 공포된 바가 없다.

환경주의자들은 환경평가를 위한 검토서가 3개 부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제 1부의 저수지 건설은 승인되었으나 제 2부와 제 3부인 댐과 사라와크에서 말레이시아 반도까지의 전력수송을 위한 해저 케이블에 대하여는 아직 아무말이 없는데 환경검토서의 분할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이다. 저수지에 대한 계획의 승인은 바로 벌목을 개시할 수 있음을 뜻하며 댐으로 조성되는 저수지 위치로부터 얻어지는 목재는 에크란사에게 M\$5억(2억 미국 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라와크의 수석 장관의 두 아들이 에크란사의 제일 큰 주주의 하나이다.

3.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

비평가들은 지금 나무를 자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불평한다. “전체 프로젝트의 제 2부와 제 3부가 타당성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 비평가는 말한다. 또한 “그들은 이미 그 지역을 황폐화시켜 버렸다”라고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650km(400마일)에 이르는 해저 케이블에 의한 송전의 기술적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다른 비평가들은 바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M\$150억을 자금시장에서 조달할 능력이 에크란 사에게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정부의 각료는 주연금 기금(State Pension Fund)에서 자금을 에크란 사에게 대여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제 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댐 건설과 벌목사업의 결합이 필연적으로 바쿤 프로젝트를 논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목재의 공급국이며, 이 열대목재의 대부분은 사라와크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이 주(洲)의 중심을 관통하고 흐르는 거대한 라장(Rajang) 강은 벌목 반출 캠프를 지나가고 있으며, 이 강의 물은 벌목과 반출로 인한 표토의 훼손으로 진흙투성이의 갈색으로 변해 버렸다. 어떤 환경주의자들은 사라와크의 우림은 20년 이내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 정부는 현상 유지가 가능한 기준에 의해서만 벌목이 허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편이 진실이든간에 바쿤 댐은 삼림의 방대한 면적의 벌목을 초래케 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4. 찬성과 반대

사라와크 내에서도 이 댐에 대한 의견이 갈라져 있는 듯하다. 프로젝트 위치의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벨라가(Belaga) 마을은 현재 일주일에 2회밖에 없는 항공편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급시간이 걸리는 선박편에 의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도로가 정글 내를 관통하게 되고 새로운 직업의 창출을 수반하게 되는 전망을 환영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농업과 어업과 그리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충격을 두려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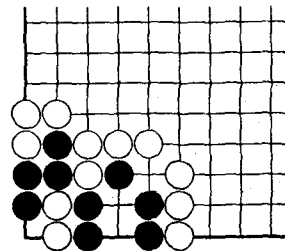
그러나 현지 비판은 신중하다. 벌목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금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인들이 현지 사람들은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벨라가로 여행하려는 외국인은 누구나 라장 강의 내시간 하류에 있는 카피트(Kapit) 마을의 경찰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피트 마을에서 조차 바쿤 프로젝트의 비판가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댐에 대한 토론을 꺼려한다. 이웃사람이 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한 현지인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누가 압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자료 : The Economist, 199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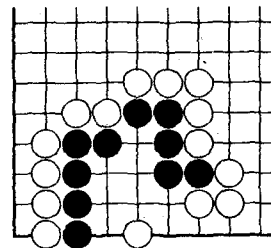
바둑 묘수풀이

● 문제 1 : 黑 차례



白 두점도 잡아야 하고 우측 黑 집도 보강해야 한다.

● 문제 2 : 黑 차례



黑 가운데 날일자로 놓여있는 白 한점에 너무 집착해서는 정답과 멀어진다.

☞ 풀이는 104쪽에